

박찬욱 감독, 한국 콘텐츠 인기 이어가나

'아바타2' 헛되지 않은 13년의 기다림

'헤어질 결심' 골든글로브 비영여권 영화상 후보 선정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 수상 기록 이어 관심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양대 영화상 중 하나인 골든글로브에서 비영여권 영화상 후보에 올랐다. 제80회 골든글로브를 주관하는 미국 할리우드외신기자협회(HFPA)는 이날 '비영여권 영화 작품상'(Best Picture Non-English Language) 부문 후보에 한국의 '헤어질 결심' 등 5편을 선정했다.

▶한국 작품의 골든글로브 수상 행진 이어갈지 주목= '헤어질 결심'은 비영여권 영화상을 놓고 '서부전선 이상 없다'(독일), '아르헨티나, 1985'(아르헨티나), '클로트'(벨기에), 'RRR:라이즈 로어 리볼트'(인도)와 경쟁을 펼친다.

'헤어질 결심'은 박찬욱 감독이 '아가씨' 이후 6년 만에 선보인 장편 영화다.

변사사건을 수사하게 된 형사 해준(박해일 분)이 사망자의 아내 서래(탕웨이)에게 의심과 관심을 동시에 느끼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멜로 스릴러다.

이 영화가 최근 한국 오리지널 작품 또는 한국계 콘텐츠의 수상 기록을 이어갈지도 주목된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2020년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을 받았다.

2021년에는 한국계 미국인 리아 이작 정(정이사) 감독이 연출한 '미나리'가 외국어영화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어 올해 1월 열린 제79회 시상식에선 '오징어 게임'의 오영수가 TV 드라마 부문 남우주연상을 품에 안았다.

▶'보이콧 사태' 여진 이어질 듯... '시상식 복귀 꺼려'=골든글로브는 아카데미상과 함께 미국의 양대 영화상으로 꼽힌다.

이 영화상은 지난해 HFPA의 인종·성 차별 논란, 운영진의 부정부패 의혹 등이 불거지며 할리우드 영화계의 보이콧 대상이 됐고, 생중계 방송마저 중단됐다.

다만, NBC 방송은 HFPA의 포용성과 다양성 증진 등 쇄신 작업을 수행해 내년 초 시상식 때 라이브 중계를 재개하기로 했다.

HFPA는 내년 1월 10일 캘리포니아주 베벌리힐스의 베벌리 힐튼 호텔에서 제80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행사 생중계를 계기로 골든글



영화 '헤어질 결심'의 한 장면

연합뉴스

로브 정상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헬렌 호니 회장은 "우리가 신뢰를 되찾기를 바란다. 더는 예전의 HFPA가 아니다"라고 개혁을 다짐했지만, 보이콧 사태 여진은 이어질 전망이다.

영화 부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브렌던 프레이저는 이날 후보 발표에 앞서 이미 시상식 불참을 선언했다.

프레이저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HFPA에서 제명된 전 회장 필립 버크가 2003년 한 행사장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영화 '탑건' 주연 톰 크루즈가 HFPA 회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 연기상 후보에서 탈락한 것도 어떤

영향을 미치지 주목된다. 지난해 크루즈는 골든글로브를 보이콧하면서 자신이 받았던 트로피 3개를 반납했다.

AFP 통신은 할리우드 스타들 고객으로 둔 유력 홍보대행사들이 "골든글로브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일부는 HFPA의 개혁 조치에 회의적이고 스타들과 함께 시상식에 복귀하는 것을 꺼린다"고 진단했다.

로이터 통신도 "골든글로브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최고 스타들의 퍼레이드를 (다시) 끌어낼지 불확실하다"며 이날 후보 발표 이후 소감을 전한 배우나 감독 등은 거의 없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화려한 영상미의 향연



인간에서 나비족이 된 제이크 설리(샘 워딩턴 분)와 네이티리(조 셀다나)는 가족을 이뤄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숲속 개울가에서 아이들과 물장구를 치고 노는 모습은 어느 가족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 '하늘의 사람들'이 제이크를 인간에 등을 돌린 배신자로 낙인찍고 공격을 준비해오기 때문이다.

제이크 가족은 위협을 벗어나고자 터전이었던 숲을 떠난다. 그들이 새롭게 정착한 곳은 바다다. 낯선 세계로의 모험, 생존을 향한 험난한 여정이 시작된다.

2009년 '아바타' 이후 13년 만에 '아바타: 물의 길'('아바타 2')이 찾아왔다. 개봉 당시 전 세계 영화계에 '영상 혁명'을 몰고 온 '아바타'인 만큼 그 후속작이 어떤 신세계를 스크린에 펼쳐놓을지 일찌감치 관심이 쏠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돌아온 '아바타'는 한껏 부풀려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아바타2'의 배경은 '물의 길'이라는 부제처럼 수중 세계다. 마치 나비처럼 바닷속을 줄지어 헤엄치는 열대어, 오묘한 색감의 산호초, 미지의 심연에서나 볼 법한 기이한 생명체들이 만들어낸 바닷속 풍경은 관객을 스크린속으로 빨아들이고도 남는다.

해양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드러내온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아바타 2'에서 가장 많은 공을 들였을 것

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전작보다 드라마틱 요소도 많이 가미돼 캐릭터들의 감정선도 한층 깊어졌다.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가족'은 관객과 캐릭터 간 감정적 소통을 끌어낸다.

아름답고 화려한 영상미에 반해 줄거리는 비교적 단선적인 편이다. 그러나 스크린 속 해양 세계에서 크리처들과 함께 유영하고 전투를 치르다 보면 192분의 상영시간은 그다지 길지 않게 느껴진다.

개봉 전부터 '화장실 압박'과 집중력 저하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영화를 기꺼이 즐길 준비가 된 관객에게는 기우일 듯하다. 외려 드넓은 바다 전경과 신비로운 크리처들이 엔딩 크레디트까지 장식하면서 영화는 끝날 때까지 시선을 돌릴 수 없게 만든다.

오늘 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연합뉴스

멜론, 올해 국내산업 동반 성장 주력

'트랙제로' '핫플리' 등 5개 중점 프로젝트 결과 공개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이 인디 아티스트 지원 프로젝트 '트랙제로'를 비롯해 올해 진행한 5개 중점 프로젝트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멜론은 대중적으로 빛을 보지 못한 인디 가수들의 곡을 엄선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메인 화면에 공개하는 '트랙제로'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360명의 인디 아티스트를 소개했다.

멜론은 메인 화면에 노출되는 3일 동안 선별된 곡들의 스트리밍 횟수가 기존 대비 평균 5~7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트랙제로'를 통해 스트리밍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곡은 검정치마의 '에브리싱'(EVERYTHING), 카더가든의 '명동콜링', 밍기뉴의 '나랑 도망가자' 순이었다.

'역주행', '노동요' 등 주제를 정해 관련 곡 '톱 100'을 선정하는

'세상의 모든 TOP 100' 프로젝트는 올해 6월 공개된 후 4주 만에 스트리밍이 10배 이상 증가하며 멜론의 핵심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이색적인 공간을 즐기는 MZ세대를 위해 'BGM(배경음악) 맛집'을 추천하는 '핫플리'도 서비스 시작 후 3주 만에 2000개 이상의 방만 인증사진이 올라오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멜론은 이 밖에도 사용자들의 음악 소비 패턴을 분석해 공개하는 '데이터랩'(Data Lab) 프로젝트도 선보였다.

'데이터랩'을 통해 공개된 방탄소년단(BTS)과 관련된 '1억 이상

멜론 스밍(스트리밍)곡 35개', '멜론 유일 누적 스밍 100억 돌파 아티스트' 자료는 멜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회수 150만 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신규 앨범을 조명하는 '멜론 스포트라이트'를 통해 방탄소년단, 아이브, 뉴진스를 비롯해 존 레전드와 찰리 푸스 등 국내외 아티스트 44팀의 음반도 소개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이재욱 멜론 부문 대표는 "멜론은 올해 다양한 음악과 아티스트들이 새롭게 조명받을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통해 국내 음악산업 전체의 동반성장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서진 여름' NYT '올해의 스릴러' 선정

이정명 장편 소설 '부서진 여름'(Broken Summer)이 미국 뉴욕타임스(NYT) 선정 '올해의 스릴러'(The Best Thrillers of 2022)에 이름을 올렸다고 은행나무 출판사가 13일 전했다.

이 리스트에는 '부서진 여름'과 함께 영국 작가 재니스 할렛의 '디 어필'(THE APPEAL)과 영국 작가 애덤 햄디의 '디 아더 사이드 오브 나이트'(THE OTHER SIDE OF NIGHT) 등 6편이 올랐다.

'부서진 여름'은 심리 묘사와 치밀한 서사, 긴장감있는 전개가 돋보인 작품이다. 거짓말과 오해가 인간의 삶에 개입해 단란했던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들의 삶이 어떻게 송두리째 빼앗기지 제 남년의 비틀린 운명을 통해 그려냈다.

한편 이정명 작가는 드라마로도 제작된 소설 '뿌리 깊은 나무'와 '바람의 화원', 해외 10여개국에 번역 출간된 '별을 스치는 바람' 등을 펴냈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KBS네트워크특선 연니랑 살래 11:55 세계는 지금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해 불만인 아침 M&W 1부 8:05 해 불만인 아침 M&W 2부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20 내 눈에 콩깍지(재) 10:00 인강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KBS 드라마 스페셜 2022 <열아홉 해물들>(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마녀의 게임(재) 8:30 생방송 오늘 아침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뽀뽀보 좋아 좋아 스페셜 11:15 푸리기 식사교실(재) 11:45 시간탐험대 다이노맨(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버스 스페셜 8:50 종로이집 9:55 SBS 10 뉴스 10:30 실미도는 오늘 11:00 이나-갤러리 11:30 슈퍼디노 11:45 해와 숲속극장들	8:00 당동당 유치원 8:20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 9:40 유디친 유치원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3:00 글로벌 이빨 찾아 심산리 15:35 푸리기 전사들 16:25 슈퍼두더 인공도시 17:30 히어로 씨클 18:00 생방송 워터쇼 해결단
12:00 KBS 뉴스 12 13:00 KBS네트워크특선 아미도 마지막 존재 13: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4:00 KBS 뉴스 14:10 방과 후 초능력 14:40 어린이 동물다방 15:10 2022 FIFA 카타르월드컵 하이리프트 16:00 사사건건 17:00 KBS 뉴스 5 17:30 탐나는 제주	12:15 KBS 드라마 스페셜 2022 <낯선 계절에 만나>(재) 13:30 목판의 노래 세상을 건다 스페셜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우리동일 세계공행(재) 15:30 TV 유치원 16:00 UHD 환경스페셜 2(재) 17:00 마자엔론디 2 17:15 시크릿 주주 베스트프렌즈 17:30 꿀꿀 영화가 좋다 17: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5 일당백집사(재) 13:40 헬로키키트 과학교실(재) 13:55 2시 뉴스 외전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 MBC 뉴스 17:10 다쿠에이 그 사람 스페셜	12:00 SBS 12 뉴스 12:30 2022 카타르 월드컵 하이리프트 14:00 내모세모(재) 15:00 혼저머서 스페셜 15:30 휴먼다큐 병명의 달인 16:00 유이드 정보쇼 알고 보면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저녁 뉴스 17:50 9시 짬뽕	10:00 조선팔도 견문록 8:30 용천수마을 다이어리 9:30 KCTV 다크스페셜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4:00 조선팔도 견문록 15:10 볼록체인 인 제주 16:10 KCTV 다크스페셜 17:40 KCTV VOD 홀로그래몽드 18:00 조선팔도 견문록 18:30 용천수마을 다이어리 19:00 KCTV 뉴스7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오페라 갈라랜드 월플 투 오페라 코루즈 20:30 내 눈에 콩깍지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생로병사의 비밀 22:50 더 라이브 23:30 KBS 뉴스라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태풍의 신부 20:30 목판의 문제아들 21:50 KBS 드라마 스페셜 2022 <편타의 계절> 23:10 커튼콜(재)	18:05 TV매거진 타임라인 19:05 마녀의 게임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일타강사 21:50 일당백집사 23:10 리디오스타	18:50 생방송 투데이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골 때리는 그녀들 22:40 편먹고 공치리4 진경순부 특별판	7:2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김서훈입니다 12:00 CBS뉴스종합뉴스 14:05 송미령의 축복속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7:30 생명의 생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한민순부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064)740-7331 / MBC 064)740-2432 / JIBS 064)740-7800 / KCTV 064)741-7723 / 제주CBS 064)748-7400 / TBN제주교보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14일
	36년 의욕이 강하고 갈 곳도 많고 활동도 활발한 48년 출가유이 생기면서도 한편으로 허전함이 몰려온다. 60년 책임분야의 능력을 인정받고 손조롭다. 다만, 임시생부모는 마음만 급하다. 72년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니 너무 기대하지말 것. 84년 신상품과 관련된 임종은 분주해지고 계약이 증가한다.
	42년 수입이 있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 내부갈등 조심. 54년 분실 또는 손재가 발생하니 문서나 지갑을 잘 관리하라. 66년 주변에 나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커졌다. 친목을 지속하라. 78년 직장에 관한 소식을 접하거나 이성이 다가온다. 구두에 신경을, 90년 상대를 감차 안아주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37년 등문서담할 일이 생기고 상대가 이해를 못한다. 49년 문서운이 원활하고 계약이 성사 되기도 한다. 61년 자녀의 문제나 가정에서 불화가 조성되니 내일에 전념하라. 73년 마음이 들떠 안정이 안되면 여행도 필요하다. 85년 이성교제나 모임이 주선되고 기쁨도 있다.
	38년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추진해도 무방. 명에 따른다. 50년 농장이나 과수원은 일손이 부족하다. 62년 답답함이 있으면 자녀와 예로사함을 상의하면 일이 호전. 74년 자신의 일을 즐길 줄 아는 용기와 결단도 필요하다. 86년 잘난 척 하면 동료 또는 상사로부터 시련이 오려도록 지속된다.
	39년 찬 음식을 드시면 탈이 날수 있으니 음식 주의. 51년 협조자나 동업자가 생기면 상해의 방법을 찾고 협력하면 좋다. 63년 불화나 논쟁이 올 수 있으니 언행은 신중히. 75년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동료나 상사를 칭찬하면 먹을 것이 생긴다. 87년 하고자 하는 일을 추진하면 기분이 두 배로 좋아진다.
	40년 생각과 행동이 부자연스러우니 일에 진전이 미진하다. 52년 명예 또는 직위에 관한 기쁜 소식이 생긴다. 64년 애매한 결정이 구설이 되니 용기있는 결단도 필요하다. 76년 내집 마련 또는 이사는 서남간에 유리하다. 88년 해결을 해야 할 일이 생기면 뒷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상의를 하면 풀린다.
	41년 뜻밖에 용돈이 생기거나 일이 풀린다. 53년 관제나 구설이 오니 외부 출타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5년 자녀에게 편안함과 용기 충전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77년 문상 또는 모임에 간다. 음식에 주의할 것. 89년 스스로 즐거움을 만들어가면 좋다. 남을 원망하지 마라.
	43년 수산종사업 건어물류 회복이 보이나 가게를 청정하게 할 것. 55년 농수산업 종사자는 몸이 분주하다. 이익이 따르고 일손이 필요하다. 67년 집안어른께 우환이 올 수 있으니 방문 또는 전화로 드려라. 79년 욕망이 팽배하고 내일을 준비하면 결과가 크다. 91년 문제가 있다면 친구나 이웃에 요청하면 낫다.
	44년 변통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는 게 좋다. 56년 출발이 지체되고 약속이 중도에 해지되니 일찍 출발하는 것이 좋다. 68년 묵묵히 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내일을 준비하라. 80년 대인관계를 폭 넓게 갖고 정보도 주변에서 창출하라. 92년 사소한 문제로 마음고생이 있는 날이다.
	45년 사업이 호전되고 직장인은 명예 또는 길사가 있을 수 있다. 57년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일이 있다면 풀려나기 계획을 잘 세우라. 69년 갈등하던 뒷사람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라. 81년 기도하는 마음과 안정이 필요한 날이다. 93년 힘이 들어도 내색하면 힘이 더 빠지니 내색하면 풀린다.
	46년 과유인치 남은 귀가는 나에게 불리하니 삼가 하는 게 좋다. 58년 유령업,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활동성이 강하거나 능력을 발휘한다. 70년 홍보 광고 마케팅 중개업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수익이 창출된다. 82년 이성간에는 불화나 논쟁이 따르니 언행조심. 94년 분실 또는 건강증이 올 수 있으니 잘 챙길 것.
	47년 이동 변화가 필요하며 가족에 안부전화. 근심수가 오기도. 59년 약속이 중첩되거나 시간이 같은 경우가 생기니 판단을 잘할 것. 71년 중매가 생기고 기혼자는 집안일에 분주. 자녀에게 신경을 많이 쓴다. 83년 자격이나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을 준비하거나. 95년 주변과 잘 화해가 되고 즐거움도 따른다.